

달러 패권 위협하는 위안화 성장과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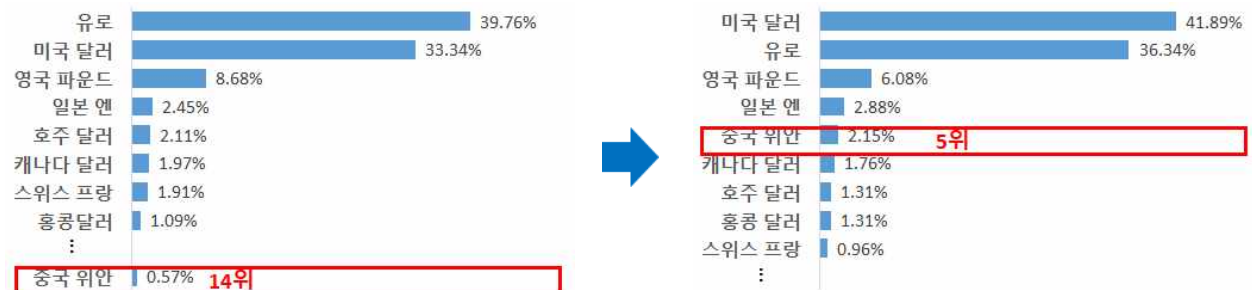
◆ 최근 위안화 결제가 빠르게 확대되며 달러 패권을 위협하고 있어 위안화 성장 배경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

I. 위안화 위상 변화

1 위안화 결제 순위 및 현황

□ ①중국 정부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, ②일대일로 등 위안화 권역 확대 노력으로 위안화는 SWIFT(국제은행간통신협회) 결제통화 5위로 위상이 높아짐

< SWIFT 결제(무역, 자본거래 등) 통화 순위 변화 : '12년 14위 → '22년 5위 >



주 : 연말기준, 자료 : SWIFT(국제은행간통신협회) RMB Tracker 보고서

□ 위안화 결제통로는 SWIFT 외에도 위안화 전용 결제시스템인 CIPS*가 있으며, 최근 CIPS 성장세가 가파름 ※ '22년 거래 96.7조위안(14조달러)

* CIPS(Cross-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)는 중국 인민은행이 독자적으로 개발('15.10월)한 시스템으로 역외 업무의 자금 청산, 결산 처리

○ CIPS 결제액까지 포함하면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

< CIPS 거래 금액 >



주 : 연말기준, 자료 : 인민은행 결제시스템 보고서

< CIPS 일평균 거래량과 거래금액 >



주 : 기말기준, 자료 : CIPS 홈페이지

2

CIPS 거래 확대 배경

- ①SWIFT의 정치적 활용, ②미중 갈등 격화에 대비하기 위해 CIPS 참여국 확대
 - (SWIFT 정치적 활용)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일부 은행이 SWIFT에서 퇴출('22년)되자 CIPS 통한 위안-루블간 직거래 증가*
 - * 위안-루블 결제액이 2년간 90배 증가(22억위안('21.1월) → 2,010억위안('23.1월))
 - 과거에도 수차례 SWIFT를 정치적·경제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*한 바 있어 사우디, 브라질 중심으로 脫 SWIFT 움직임 확산
 - * 핵무기 개발로 이란 은행 SWIFT 퇴출('12년), 북한 은행 SWIFT 퇴출('17년)

[위안화 직거래 사례]

- 중국-브라질 자국통화 무역 합의('23.1월) : CIPS를 통한 중국 위안-헤알 직거래
- 중국 수출입 은행, 사우디에 무역결제용 위안화 대출 지원 합의('23.3월)
- 이란 재무부 장관, 기자회견('23.2월)에서 위안-리알 직거래 추진증임을 표명

- (미-중 갈등 격화) 향후 중국이 SWIFT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對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상황

<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(CIPS) 참여 현황 및 개요 >

	1기 출범('15.10월)	2기('18.5월~현재)	
		2기 개편('18.5월)	현재('23.3월)
직접 참여 ^{주1)}	19개 기관 ^{주3)} (중국계 11, 외국계 8)	31개 기관	79개 기관* * 한국에는 ①교통은행 서울지점, ②중국은행 서울지점 2개 기관
간접 참여 ^{주2)}	176개 기관	701개 기관 ※ 지역별 비중(%) : 아시아(76), 유럽(12), 아프리카(4), 북미(4), 오세아니아(2), 남미(2)	1,348개 기관(신한, 하나 참가) ※ 지역별 비중(%) : 아시아(74), 유럽(17), 아프리카(4), 북미(2), 오세아니아(2), 남미(1)
결제 방식	총액결제방식	총액결제방식+혼합결제방식 ^{주4)}	
운영 시간	12시간(9:00am~8:00pm)	24시간	
장 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접 참여기관 대상으로 청산업무를 집중 처리하여 결제 단계 단축 - 범용 금융통신 메시지 표준(ISO 20222)를 이용해 국제 업무 처리 - 직접 참여자에게 전용선 제공 		

주1) 직접 참여은행은 CIPS 계좌를 개설하여 위안화 송금 및 수령이 가능

주2) 간접 참여은행은 직접 참여은행을 통해서만 업무 수행이 가능

주3) 중국계 11개 : 공상·농업·중국·건설·교통·초상·푸동발전·민생·홍업·평안·화하 은행

외국계 8개 : HSBC(홍콩), 동아(홍콩), Citi(미국), 스탠다드차타드(영국), 도이체(독일), BNP파리바(프랑스), ANZ(호주), DBS(싱가포르), 자료 : CIPS, KOTRA 보도자료 등

주4) 총액결제방식은 실시간 총액결제 방식으로, 신용위험은 낮으나 많은 유동성이 요구되는 반면, 혼합결제 방식은 차감결제는 짧은 주기로 수차례 수행하여 유동성을 절약

II. 중국의 위안화 결제 동향

1 위안화 기반의 중국 무역거래

□ '23.3월 중국 상품교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은 22.7%

- 미중 갈등이 심화되자 '22년부터 사우디, 이란 등 산유국 중심으로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에 대한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
-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對러시아 제재가 확대되며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

□ (對한국 교역) 한국과의 교역에서 위안화 결제는 빠르게 확대(0.8→7.5%)되고 있으나, 우리나라는 달러에 대한 의존도(88.4%)가 여전히 높은 편

※ 對한국 교역 중 결제통화 비중('22년) : 달러화 88.4%, 위안화 7.5%, 원화 2.5%



자료 : 인민은행, 해관총서



자료 : 한국은행

2 위안화 기반의 중국 증권투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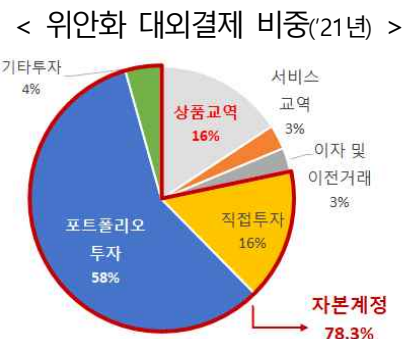
□ 자본시장 개방 조치 등으로 '15년 이후 무역결제보다는 증권투자에서 위안화 결제가 빠르게 성장 [p.4 위안화 국제화 추진 및 시장 개방 연혁 참조](#)

- 반면, 脫달러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美 국채에 대한 선호는 약화

※ 외국인 미국채 보유 비중 : 40%('19) → 34%('20) → 33%('21) → 30%('22), 10%p ↓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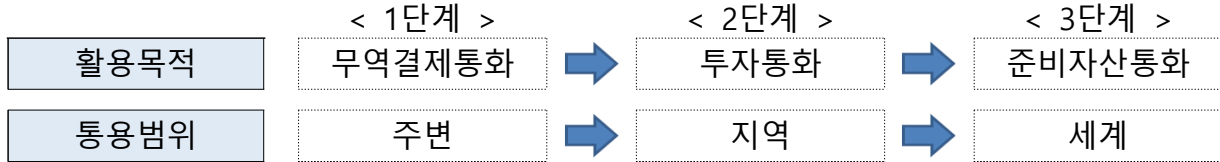


주 : 경상계정은 상품교역, 서비스교역, 해외급여, 투자배당금 및 이자 등, 자본계정은 증권투자, 해외직접투자, 외국인직접투자 등으로 구성, 자료 : 인민은행, 위안화 국제화 보고서('22.11월)



참조1 : 위안화 국제화 추진 및 시장 개방 연혁

□ 위안화 국제화는 무역결제 → 투자결제 → 준비자산 통화 순 단계별 추진



□ (1단계: 무역결제) 세계 최대 교역국이라는 이점 활용한 위안화 국제화 방안

< 위안화 무역결제 개방 연혁 >

날짜	조치	내용
'09.4	무역 가능 시범도시 운영	상하이, 광저우, 선전, 주하이, 등관 5개 도시 허용
'11.8	무역 가능 지역 제한 철폐	'10.6월 시범도시 20개로 확대후 전면 폐지
'12.7	위안화 무역결제 규제 폐지	적격기업제도(MED) 폐지 : 모든 수출기업 위안화 결제 가능 ※ 수입기업 제한은 원래 없었음
'12.10	제도 간소화	무역결제 문서 확인 절차 간소화
'14.6	개인의 위안화 무역결제 전면 허용	

□ (2단계: 투자통화) 중국 자본시장 개방으로 위안화의 투자 활용도를 보강*

* 통화는 ①지급수단, ②계산단위, ③가치저장수단의 기능이 있는데 한 나라의 통화가 국제통화로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**보유 및 투자로 활용되는 가치저장수단의 기능이 가장 중요**

< 중국 자본시장 개방 연혁 >

날짜	조치	내용
'12.11	RQFII(위안화 적격 해외기관투자자 제도)	RQFII 자격 취득한 투자자는 중국 은행간 채권시장 투자 가능
'14.11	후강통 개통	중국 상하이-홍콩 증시간 교차거래 시스템 ※ 홍콩을 경유하면 외국인 투자자 상하이 증시에 투자 가능
'16.12	선강통 개통	중국 선전-홍콩 증시간 교차거래 시스템
'17.6	중국 A주 MSCI 지수 편입	A주 230개 종목의 시가총액 2.5%를 편입 ※ 인덱스 펀드 구성시 중국 A주에 외국인 투자 확대
'17.7	채권통 개통	중국본토-홍콩간 채권 교차거래 시스템
'19.1	S&P다우존수지수에 중국 A주 편입	중국 A주 1,099개 종목 편입
'19.6	후룬통 개통	중국 상하이-런던 증시간 교차거래 시스템
'19.6	FTSE Russell에 중국 A주 편입	중국 A주 FTSE 신흥시장 지수의 5.5% 차지

□ (3단계: 준비자산통화) 위안화가 IMF SDR*에 편입('16.10월)되며 준비자산 통화로서의 위상 확보 * IMF 회원국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인출할 수 있는 준비 자산

○ '22.5월 위안화의 SDR(Special Drawing Right)편입 비중 확대(10.92%→12.28%)

※ IMF SDR 편입 비중(%) : 달러 43.38, 유로 29.31, **위안 12.28**, 엔 7.59, 파운드 7.44, **現비중 3위**

Ⅲ. 국내 위안화 거래 확대 배경

- 중국 기업은 환위험 관리, 비용 절감, 수출입 송금 절차 간소화 등을 이유로 위안화 결제 요구 확대
 - (환위험 관리) 자국 통화인 위안화 결제시 환율 변동 위험이 제거 가능
 - (비용 절감) 무역거래 당사자간 직접거래가 가능해 은행 수수료, 환전 수수료 및 중개인 비용 절감
 - (절차 간소화) 외국환 결제시 요구되는 절차* 간소화 가능
 - * 외국환 거래시 거래 은행 및 계좌가 제한되고 신고 의무 준수 등 절차 복잡화

-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 소재 자회사의 환위험 관리 편의 도모와 환리스크 분산 등의 이유로 위안화 결제 확대
 - 중국 소재 자회사로의 수출인 경우 환위험 관리, 비용 절감 등 중국 자회사의 편의 도모를 위해 위안화 결제 이용
 - 위안화 등 다양한 결제 통화 활용시 달러가치 변동에도 환 리스크 분산 가능
 - 결제 통화가 위안화 단일 통화에 국한되더라도 최근 원-위안 동조화 현상 때문에 다른 결제 통화에 비해 환율 변동성이 낮은 편



자료 : 한국은행

< 주요국 통화 월간 상승률('16년~'23.4월) >

	평균	변동성 (표준편차)
달러화	0.13%	1.85%
유로화	0.13%	1.65%
엔화	△0.01%	1.89%
위안화	0.07%	1.43%

< (참고) 위안화 결제 기업 인터뷰 >

	수출기업(자동차 부품업)	수입기업(엘리베이터 제조업)
교역 내용	- 중국 자회사로 자동차 부품 수출	- 중국 기업에서 엘리베이터 부품 수입
결제 배경	- 중국 소재 자회사의 편익* 도모 * 환위험 관리, 비용 절감, 절차 간소화 등	- 중국 기업의 요구*(위안화 요구 확대 추세) * 중소기업은 거래처가 제한되어 있어 '을'의 위치에서 거래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
장점	- 분산 효과로 환 위험 관리에 용이* * 해당기업은 달러, 유로화, 위안화, 엔화 결제 모두 이용중	- 환율변화에 따라 수입가격 재협상에 유리* * 환율 5% 이상 상승시 가격 할인 받는 구조
단점	- 높은 환전 수수료(달러보다 환전 수수료가 높음), 헤지 수단 부재(위안화 파생상품 없음) 등	

IV. 시사점

1 위안화 관련 상품서비스 확대

- 중국과의 교역량이 줄더라도 수년 내 중국과의 교역 대부분이 위안화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무역금융 편의성 증대 노력이 필요
 - 무역금융(신용장, 추심, T/T 송금)*, 위안화 대출 등 상품서비스 준비 필요
 - * IBK는 위안화 무역결제 특화송금 서비스인 「IBK 중국 콰이디(快低) 송금」 운영 중
- 위안화 매입·매도 절차 간소화, 향후 헤지 수단 확보 노력 필요
 - 헤지 상품이 부재하기 때문에 기업이 목표 환율에서 외화 매입(매도)이 용이하도록 비대면 환거래 시스템 개발 필요
 - 현재 국내 위안화 기반 파생상품은 없으나 역외상품을 이용한 헤지 상품 개발 검토
- 위안화 투자 활용도 보강을 위해서는 위안화 기반의 자산 운용상품 개발이 요구되나, 불안한 중국 정치 상황* 등을 감안하여 보수적 접근 필요
- * 시진핑이 '장기집권'으로 독재권력을 구축하며 중국이 개방경제에서 폐쇄경제로 회귀할 우려 제기

2 위안화 지급결제 채널 점검

- 위안화 결제 확대 추세에 대비하여 CIPS 등 지급결제 채널 점검 필요
 - 최근 脫달러 현상 가속화되며 우리나라 기업의 위안화 결제 비중도 확대 추세
 - 뿐만 아니라 중국이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CIPS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데도 현재 국내 은행의 CIPS 참여는 미진한 편*
 - * 신한, 하나은행 참여중
- 최근 국가간 연계가 강화되고 결제 시스템이 다양화되는 추세로 금융기관은 고객 니즈에 맞는 효율적 결제 시스템을 선정·활용할 필요
 - ☞ p.7 주요국 국가간 지급결제 시스템 변화 참조
 - 결제시스템이 다양화됨에 따라 수수료, 처리 속도, 안전성 등에서 차별화

참조2 : 주요국 국가간 지급결제 시스템 변화

□ '20.2월 G20 중앙은행 총재·재무장관 회의에서 국가간 지급 효율성 개선을 주요 협력 과제로 선정

○ BIS, FSB(금융안정위원회), 세계은행 現 국가간 지급 프로세스의 주요 문제로 ①비싼 수수료, ②느린 처리속도, ③제한된 접근성, ④낮은 투명성을 지적*

* 現 국가간 지급 프로세스는 통상적으로 복수의 환거래은행이 개입하고 국가간 시차요인이 더해져 그 과정이 복잡하고 비효율적(비용↑, 시간↑)

○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(리플, 이더리움, 리브라 등) 등장 이후 비효율적 지급결제 시스템의 변화 필요성 확대

□ 최근 지급결제 효율성 개선을 위한 국가간 연계가 강화되는 추세

○ 국가간 연계 과정에서 결제시스템 방식 다각화

○ 각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(CBDC)를 이용한 지급결제 방안도 논의중

※ 중국, 홍콩, 태국, UAE : mCBDC Brige 프로젝트 추진중

< 지급결제 시스템의 국가간 연계 사례 >

연계방식	양자간 연계 방식	다자간 연계방식
개요	2개국 시스템을 직접 연계	3개국 이상의 시스템을 별도의 지급결제 플랫폼을 통해 다자간 연계하는 방식
주요사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국 FedACH - 멕시코 SPEI • 홍콩 RMB CHATS - 중국 CIPS • 러시아 SPFS - 중국 CIPS • 싱가포르 PAayNow - 태국 PromptPay • 스위스 euroSIC - 유로존 TARGET2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BIS Nexus 플랫폼(추진중) • 독일 Amplus 플랫폼(추진중) • 아랍 Buna 플랫폼 • 북유럽 P27 플랫폼(추진중) • 남아공 SADC-RTGS 플랫폼
운영방식	<p>양자간 - 직접연결방식</p>	<p>다자간 - 참가기관 연계형 플랫폼</p>

□ 지급결제 시스템의 성장성, 효율성,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스템을 선정하기 위해 지급결제 시스템 변화에 대비할 필요

○ 現 지급결제 시스템 대부분은 통신망 및 참여자 제한으로 SWIFT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용중이나, 향후 SWIFT 의존도 점차 축소될 전망